

특집 · 고돈가 시기의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수입육 시장동향과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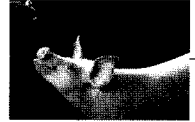
권영철 대표
미트저널(주)

수입돼지고기 시장이 '영망'이다. 잘됐다고 박수라도 치고 싶다. 왜냐면 수입업자들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하반기에는 자칫 '계류'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수입육 시장이 국내산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이다. 아직까지 산지 돈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출하물량 부족에 따른 판매가격이 수입쇠고기 가격을 제쳐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돼지고기 소비자들이 쇠고기로의 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됐다. 올 들어 지난 3월에는 돼지고기가 완전수입자유화 된 지난 199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2만4천여톤이 수입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입량이 조금씩 줄어 들고 있으나 여전히 한 달에 1만2천톤이 넘게 수입되는 등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육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상반기에 총 10만6천여톤이 수입됐다. 이 같은 물량은 지난 같은기간에 비해 2배 가까운 191.8%가 늘어났다. 한 달 평균 1만7천여톤이 수입됐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까지 20만여톤 내외가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보다 2배의 수입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수입량에 육박하는 실로 엄청난 수치다.

국가별 올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한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하던 덴마크를 제치고 미국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보이고 있다. 이어 칠레



〈표 1〉 2005년 상반기 돈육 부위별, 월별 수입량(검역기준)

(단위:톤)

| 구 분 | 전년동기누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합 계 | 전년동기대비(%) |
|-----|--------|--------|--------|--------|--------|--------|--------|---------|-----------|
| 갈 비 | 5,414 | 2,803 | 2,427 | 3,670 | 3,024 | 2,206 | 1,451 | 15,581 | 287.7 |
| 뒷다리 | 402 | 48 | 84 | 257 | 176 | 197 | 111 | 873 | 217.1 |
| 등 심 | 85 | 23 | 55 | 192 | 157 | 135 | 22 | 585 | 688.2 |
| 목 심 | 622 | 2,276 | 2,658 | 4,735 | 3,982 | 2,637 | 1,625 | 17,918 | 2,880.7 |
| 삼겹살 | 23,271 | 9,246 | 7,060 | 11,604 | 9,102 | 6,884 | 6,071 | 49,968 | 214.7 |
| 안 심 | 46 | | 21 | 94 | 85 | 275 | 27 | 502 | 1,091.3 |
| 앞다리 | 11,647 | 1,551 | 2,115 | 2,158 | 2,753 | 2,379 | 1,185 | 12,140 | 104.2 |
| 기 타 | 2,421 | 636 | 912 | 1,449 | 1,346 | 1,782 | 2,227 | 8,355 | 345.1 |
| 합 계 | 55,206 | 16,584 | 15,337 | 24,160 | 20,626 | 16,496 | 12,719 | 105,921 | 191.8 |

2위, 프랑스 3위, 캐나다 4위, 벨기에 5위를 나타내는 등 덴마크, 네델란드, 헝가리 등 기존 상위 국가들을 밀어내는 변동을 보이고 있다. 수입국가도 14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됐다. 70여 곳의 수입업체에서 무려 90여개의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 된다.

1. 국산·수입 강력한 ‘딤임팩트’ 피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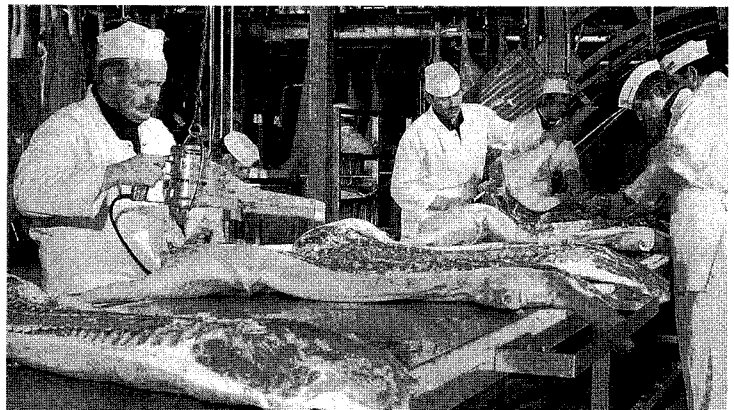
같은 기간 수입부위를 보면 두말 할 것도 없이 전체 수입량의 삼겹살이 47.1%를 차지하는 1위, 다음이 16.9%를 차지한 목살로 나타났다. 더욱이 목살과 안심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2880.7%, 1091.3% 등의 기하학적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갈비 14.7%, 앞다리 11.5% 등의 수입량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비중을 보이고 있다. 수입육 시장상황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삼겹살 기준 수입육 도매유통

가격은 7월 상순 현재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년에 비해 kg당 높게는 1천원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덤핑물량이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가격 정상화는 상당기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육 가격대는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으나 칠레, 네델란드, 프랑스산 일부가 kg당 5천원 중반대로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 국가산들은 kg당 4천원초반에서 5천원 미만으로 거래를 나타내고 있다.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시장상황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돈육 소비 역시 활성화



▲ 올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한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하던 덴마크를 제치고 미국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보이고 있다.



특집 · 고돈가 시기의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표 2〉 2005년 상반기 국별, 월별 수입량(검역기준)

(단위:톤)

| 구분 | 전년동기누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합계 | 전년동기대비(%) |
|-------|--------|--------|--------|--------|--------|--------|--------|---------|-----------|
| 네덜란드 | 4,959 | 1,136 | 720 | 1,269 | 1,092 | 915 | 574 | 5,707 | 115.0 |
| 덴마크 | 6,872 | 1,396 | 908 | 1,909 | 1,144 | 448 | 845 | 6,651 | 96.7 |
| 멕시코 | 65 | 251 | 186 | 453 | 374 | 154 | 154 | 1,571 | 2,416.9 |
| 미국 | 7,956 | 3,109 | 4,028 | 6,120 | 5,753 | 4,940 | 3,175 | 27,125 | 340.9 |
| 벨기에 | 9,302 | 2,141 | 1,311 | 2,287 | 1,722 | 1,325 | 1,006 | 9,792 | 105.2 |
| 스페인 | 191 | 605 | 301 | 950 | 579 | 501 | 322 | 3,258 | 1,705.7 |
| 영국 | - | 99 | 43 | 181 | 199 | 43 | 20 | 584 | - |
| 아일랜드 | - | 21 | - | 34 | 87 | 21 | - | 163 | - |
| 스웨덴 | 344 | 69 | 114 | 294 | 89 | 120 | 23 | 709 | 206.1 |
| 오스트리아 | 2,504 | 1,314 | 889 | 849 | 895 | 620 | 374 | 4,940 | 197.2 |
| 칠레 | 8,330 | 2,033 | 2,318 | 2,169 | 2,445 | 2,489 | 2,104 | 13,564 | 162.8 |
| 캐나다 | 3,922 | 963 | 1,616 | 2,867 | 2,217 | 2,124 | 1,439 | 11,225 | 286.2 |
| 폴란드 | 1,420 | 481 | 364 | 755 | 519 | 478 | 744 | 3,343 | 235.4 |
| 프랑스 | 5,508 | 2,031 | 1,920 | 2,855 | 2,187 | 1,556 | 1,174 | 11,723 | 212.8 |
| 핀란드 | 397 | 98 | 43 | 111 | 117 | 85 | 122 | 577 | 145.3 |
| 헝가리 | 2,251 | 727 | 461 | 933 | 1,062 | 559 | 501 | 4,245 | 188.5 |
| 호주 | 368 | 104 | 115 | 87 | 95 | 94 | 141 | 636 | 172.8 |
| 기타 | 815 | - | - | - | - | - | - | - | - |
| 소계 | 55,206 | 16,584 | 15,337 | 24,160 | 20,626 | 16,496 | 12,719 | 105,921 | 19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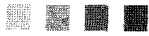
〈표 3〉 수입돼지고기 도매유통 가격동향(2005. 7월 상순)

(단위:원/kg)

| 품목 | 국가 | 브랜드 | 가격 | 품목 | 국가 | 브랜드 | 가격 |
|-----|-----|-------|-------------|-----|-------|-------|-------------|
| 목살 | 칠레 | 아그로 | 5,000~5,300 | 삼겹살 | 칠레 | 아그로 | 5,500~5,800 |
| | 헝가리 | 링가 | 4,400~4,700 | | 프랑스 | 버나드 | 5,000~5,500 |
| | 캐나다 | 올리멜 | 4,800~5,100 | | 프랑스 | 쿠펠 | 4,700~5,000 |
| 목전지 | 미국 | 씨보드 | 3,500~3,800 | | 프랑스 | 쏘코파 | 4,300~4,700 |
| | | 스미스필드 | 3,400~3,700 | | 프랑스 | 아벨라 | 4,300~4,700 |
| 갈비 | 헝가리 | 링가 | 4,200~4,500 | | 덴마크 | 스텝 | 3,900~4,300 |
| | | 파파 | 4,200~4,500 | | 벨기에 | 릭스 | 4,500~4,700 |
| | 덴마크 | 디에스 | 4,000~4,300 | | 벨기에 | 웨스트 | 4,400~4,700 |
| 등뼈 | 캐나다 | 마처 | 4,100~4,400 | | 벨기에 | 보니맥스 | 4,200~4,600 |
| | | 올리멜 | 1,400~1,600 | | 네덜란드 | 두메코 | 5,300~5,600 |
| | | 메이플 | 1,400~1,600 | | 핀란드 | 아트리아 | 4,500~4,800 |
| 목뼈 | 캐나다 | 올리멜 | 1,600~1,800 | | 오스트리아 | 마처 | 4,400~4,700 |
| | | 메이플 | 1,600~1,800 | 알프스 | | 4,800 | |
| 장족 | 칠레 | 아그로 | 2,800~3,100 | | | | |

화되지 않고 있어 수입육 재고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수입육은 특별한 소비확

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한 여름철 성수기를 끝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우선 수입업체들의 수입자제가 아닌 아예 '일시적 수입중단'이 요구된다. 상반기 중에 벌써 한 해 수입될 물량 전부가 들어 왔다. 여기에 국내산 유통업체들도 가격연동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이탈을 막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육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지 가격 유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비시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돈가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황이다. 다시 말해 3/4분기에 들어서면 수입육 시장은 '한냉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2. '동반하락(?)', 쇠고기 수입재개 불안심리 팽배

이와 함께 추석 성수기를 지나면 또다시 시장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와 동시에 수입육은 물론 국내산까지 가격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기간부터는 국내산 돼지고기 물동량도 늘어 나면서 계속된 소비침체로 인해 국내산 지육 kg당 4천원 미만, 수입육 삼겹살 기준 평균 kg당 4천원대 중반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수입냉장육의 시장확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내산과 큰 폭의 가격차를 나타내 음식점 등 판매장에서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산 수입냉장 삼겹살 도매유통가격이 kg당 7천원대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산

브랜드육 냉장삼겹살의 경우 소매가격이 kg당 1만8천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입육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반기 돼지고기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선 수입업체들의 수입자제가 아닌 아예 '일시적 수입중단'이 요구된다. 상반기 중에 벌써 한 해 수입될 물량 전부가 들어 왔다. 여기에 국내산 유통업체들도 가격연동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이탈을 막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육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지 가격 유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소비시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돈가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입육 시장은 상반기 겨우 숨쉬고 넘어 갔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사면초가'에 직면, 벼랑 끝 작전을 전개하는 경우가 빈번해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양돈**